

WCC 관련 자료

1.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소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신교 국제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회, 정교회, 성공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전 세계 110개 나라 349개 교단, 5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세계교회협의회와 워킹그룹을 형성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1948년에 창립된 세계교회협의회는 1910년에 열린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그 출발점이다.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요한 성격은 Witness (증거, 즉 선교), Unity (일치), Service (봉사)이다. 세계교회협의회 헌장에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서에 따라 하나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며,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보편적 소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의 공동체”라고 되어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WCC 헌장은 그 회원의 자격을 특정 교파의 신조에 두지 않는다. 사도신조와 니케아신조에 근거하여 성경과 삼위일체 신앙을 교회의 연합의 기초에 두고 있다. 교파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치(God-given-unity)를 추구한다.

WCC는 네 가지 공동의 과제를 공유한다. 첫째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 친교 안에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소명, 둘째 선교와 전도를 위한 사역에서 공동의 증언을 증진할 과제, 셋째 인간의 곤경에 맞서 기독교적 봉사에 참여하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할 것, 넷째, 일치를 통한 갱신 및 예배, 선교, 봉사의 증진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크게 여섯 개 프로그램 국으로 나뉘어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in the 21st Century (WCC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WCC는 세계 교회들과 그리고 여러 다른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함께 교회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비전을 제시하고, 신학적 연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평신도, 여성,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력 개발에 힘써 오고 있다.

2) Unity, Mission, Evangelism and Spirituality

(일치, 선교, 전도와 영성)

WCC는 회원교회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다양한 선교적 역량을 발전시켜 온 인류가 함께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3) Public Witness: Addressing Power, Affirming Peace

(공공 증거: *(약자의 편에서)* 힘에 대항, 평화 건설)

WCC는 교회가 사회적 불의와 폭력, 전쟁, 가난, 환경파괴에 대항하며, 선지자적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는 폭력극복10년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하였고,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와 환경파괴에 민감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WCC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역사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WCC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군의 파견을 유엔에 가장 먼저 권고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구호와 전쟁 후 복구 사업을 위해 막대한 물량을 지원하였다.

4) Justice, Diakonia and Responsibility for Creation

(정의, 디아코니아와 창조질서에 대한 책임)

WCC는 빈곤, 인권, 정의의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신학을 강조하여 왔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빈민, 이주노동자, 소수 민족 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들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WCC 연 예산의 23% 이상이 “Justice, Diakonia and Responsibility for Creation”을 위한 선교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WCC가 얼마나 사회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디아코니아(사회봉사) 사역에 힘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물 부족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세계에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

5) Education and Ecumenical Formation

(교육과 에큐메니칼 구성)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연구를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기관을 보세이에 설립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세계 교회 지도력 양성에 힘써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3세계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 교회와 사회 발전의 기틀을 쌓고 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고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다.

6)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종교 간 대화와 협력)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에베소서 4장 6절)

그러므로 WCC는 다른 종교들과, 인류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한 열린 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WCC는 다른 종교와 평화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함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WCC의 의사결정기구인 매 7년마다 열리는 총회이다. 총회는 각 대륙별로 15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이 중앙위원회가 매년 모임을 갖고 다음 총회가 개최 될 때까지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중앙위원들 가운데 26여명의 실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밖에도 주요 이슈별로 신앙과 직제 위원회, 세계선교와 복음 위원회, 교회와 국제문제 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2. 오이쿠메네 (OIKOUMENE)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 - 요한 복음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서 우리는 복음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1:20의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와 에베소서 1:10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교회는 인류사회의 갱신과 창조세계의 보전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된다. 교회는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인류사회와 창조세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

“오이쿠메네”, 혹은 “에큐메니칼” 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일상 언어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언어 중에서도 익숙치 않은 단어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오이쿠메네를 “교회들의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 운동으로 이해한다. 또 다른 일부는 각 나라의 교회협의회(NCC)나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선교와 전도 관련 프로젝트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환

경, 인권운동 등으로 이해한다.

“오이쿠메네”는 본래 희랍어 oikeo- “살다, 거주하다”, 혹은 oikos- “집”의 뜻에서 유래, “사람이 사는 모든 땅”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신약성서에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15번 나온다. 70인역은 세계, 흙, 혹은 대지를 뜻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을 번역하는 데 상당히 자주 오이쿠메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참된 오이쿠메네는 그리스도 왕국의 세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히브리서 2장 5절)

필립 포터(Philip Potter/ WCC 3대 총무 역임)는 1979년 1월 자마이카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이쿠메네를 그 근원적인 의미, 즉 주님께 속한 전 세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삶은 교회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류의 일치를 위하여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급과 인종과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협력하는 것을, 그리고 민족과 인종 간의 차이를 평화롭게 화해시키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프강 후버, 진리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투쟁, 채수일 역, 한국신학연구원 1991, 25쪽)

오이쿠메네(에큐메니칼)의 진정한 의미에 기초하여 WCC는 어떤 일방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색해 왔다. 한 예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WCC는 7월 9~15일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 상황과 세계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해서 유엔이 한국에서 경찰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고, 그 결과 유엔군의 참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WCC 회원교회들은 한국을 구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6년 프린스턴신학교 교장 존 매카이(John MaKay)가 미국 NCC 안에서 중국교회의 재승인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1959년 통합과 합동의 분열 때도 WCC 용공시비가 재현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른 지금,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WCC의 신학적 입장은 결코 용공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한편 WCC는 로마 가톨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주류 교회들의 협의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를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라고 비난하

게 된 근거는 WCC가 지난 45년 동안 전개해온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이었다. WCC는 종교간 대립으로 벌어지는 많은 폭력과 유혈 사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WCC는 신학협의회 안에서 신학자들과 종교전문가들의 대화에 충분한 학문적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WCC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는 회원 교회들의 신학적, 신앙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해 왔다.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WCC는 ‘웁살라 총회보고서’(1968)에서 타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타종교인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지침’(1979)에서는 기독교를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있다.

WCC는 창립이후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을 통전적으로 다뤘고 1990년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1974년의 복음주의자들은 ‘로잔언약’ 역시 “사회적 행동이 전도는 아니고, 정치적 해방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가 모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확증한다”고 밝혔다. 복음주의운동과 에큐메니칼운동 사이에는 구원의 통전성을 향한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

3. WCC 총회의 한국 개최의 의미

1) 이제 21세기 세계교회 운동의 중심은 아시아다. : 아시아 교회는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서구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구 교회의 신앙고백과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종교, 그리고 민족적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아시아 교회만의 독특한 신학과 신앙고백, 기독교전통이 발전해 왔다.

WCC 총회의 한국 유치를 통하여 아시아의 영성과 기독교 전통을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선교적 과제들(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 종교 간 대화와 평화, 빈곤, 경제정의, 환경, 민족/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 폭력극복 등)을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세계)에 일구어 낼 수 있는 동력을 모을 수 있다.

2) 한국 교회들의 일치와 연대를 이끈다. :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선교의 열매들을 결실하였다. 한국교회는 제3세계교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교사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원조를 받는 교회에서 베푸는 교회로 성공적인 선교 발전을 이루었다. 제10차 WCC 총회의 한국 개최는 한국

교회의 진보와 보수의 이해를 넘어 하나된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깊은 영성과 신앙고백을 세계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과 풍부한 그리고 준비된 인적, 물적 자원을 세계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의 분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분열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함께 하나되고, 협력하며, 연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쟁적이고 개교회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양적, 수적 성장을 자화자찬하기보다 더욱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힘과 전심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진자인 한국교회는 2013년 우리를 찾아오는 세계 교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3)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한국전쟁 발발시의 한국을 떠올린다고 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변화된/ 발전한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는 저개발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

WCC 총회의 한국 개최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1,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유일하게 OECD 회원국이 되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인의 열정과 성실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그만큼 세계 속에서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발전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교통, 통신망, IT 기술 등)과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한국교회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국내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역대 WCC 총회 중에 가장 훌륭한 총회로 이끌어 낼 수 있다.

- 4)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 : WCC 총회 총대와 옵저버(방문자), 자원봉사자, 언론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있는 총회 전체 참가자는 5000-6000명에 달한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이들이 WCC 총회 참가를 위하여, 국내 체류 시에 소비하는 비용(항공료와 숙식비, 문화관광비 등)은 개최국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플러스 경제 효과를 준다. 그리고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2012년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Expo 2012)에 이어,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울 또는 부산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적 행사들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WCC 새뮤얼 코비아 총무의 제 10 차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에 관한 인터뷰

일시: 2009년 11월 12일

장소: WCC 총무실

대담자: 금주섭 WCC 선교와전도위원회 총무

먼저 월간 <쳐치 리더>를 대신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쳐치 리더>는 한국의 에큐메니칼 월간지로서 한국교회의 정론을 전달하는 목회전문지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세계교회협의회와 특별히 차기 부산 총회에 대하여 직접 WCC 총무님으로부터 심도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먼저 WCC 총무님으로서 부산 총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요?

무엇보다도 저는 WCC 중앙위원회가 한국교회의 초대를 받아들여 차기 10차 WCC 총회를 부산으로 결정된데 대한 저의 감사와 기쁨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10차 총회를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개최할 것이라는 대해 모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한국 회원교회들의 WCC에 대한 헌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러한 헌신에 기반하여 한국교회가 총회개최에 필요한 경험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국교회가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세계교회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제3세계교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교사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원조를 받는 교회에서 베푸는 교회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차 총회에서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WCC와 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21세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선교사명을 이해하고 응답하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교회가 많은 점을 한국교회의 선교로부터 배우고 한국교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인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신앙축제를 한국교회와 더불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WCC 10차 총회는 매우 역사적인 총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10차 총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한국교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조직할 것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총무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최후의 분단국가입니다. WCC는 그동안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오랜 관심과 협조를 제공해왔는데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WCC가 부산 총회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WCC가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오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몇 주 전 WCC는 남북교회의 직접적 만남과 통일 논의의 물꼬를 튼 도잔 소협의회 25주년 기념예배와 협의회를 홍콩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총회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와 화해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홍콩에서 남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성찬식을 집례하고 남북과 해외의 대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하면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과 세계가 냉전의 유산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홍콩의 경험이 부산 총회를 통해 한반도의 전체의 일치와 화해로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부산 총회를 통해 교회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단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렇다면 WCC가 10차 총회장소로 부산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WCC 중앙위원회가 한국교회가 총회를 유치하고 훌륭하게 치러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듯 합니다. 매 총회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WCC 총회 유치단이 중앙위원회 석상에서 보여준 프리젠테이션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중앙위원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프리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서 중앙위원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21세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 부산 총회는 인도 뉴델리 총회 이후에 52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총회인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시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번 총회 장소 결정에 있어서는 물론 한국교회의 역량이 가장 결정적이었지만 반면에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총회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이 매우 호소력이

있었고 중앙위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WCC 총무로서 한국유치단과의 만났는데 한국교회 대표들은 저에게 “물론 차기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부산 총회가 한국총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총회이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의 공헌과 기여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라는 <WCC총회 한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아시아 교회대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부산 총회에 아시아 교회의 기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다음의 몇가지 질문들은 WCC 총회가 한국으로 유치되고 난 후 환영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내 일부 보수교단들이 표명하는 WCC의 신학 노선에 대한 염려와 우려에 관계된 질문들입니다. 소수의 일부 비회원 교단들은 그 이유를 들어 WCC 총회의 한국개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WCC는 회원교회들의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일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타종교와의 대화로 확대 되어 왔습니다. 이 점을 들어 한국 내 보수교단들은 “WCC가 종교다원주의 단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총회 한국개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WCC 총무로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먼저 저는 WCC가 한국내 보수교단의 건설적인 비판과 애정어린 충고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항상 변화를 향해 열려진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일부 보수 교단들이 WCC가 영적이지 않고 성경적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WCC 활동에 조금만 참여해 보면 WCC의 모든 활동이 성경적 신앙에 입각한 매우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 케냐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포럼> 출범예배에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기독교포럼에는 그동안 WCC를 비판해 오던 많은 보수주의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WCC가 그렇게 깊이 성경에 기초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그동안 몰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총무로서 그동안 그들이 가졌던 WCC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110여개국의 349개 주류교단의 5억 6천만명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WCC가 마치 사탄의 집단으로 비춰져 있었고, 아주 소수의 보수주의 교단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WCC를 오해하고 있는 매우 극단적이고 위험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다원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WCC는 45년 이상 <종교간의 대

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WCC는 타종교에 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었고, 타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 정죄하고 대립하여 전 사회를 분열과 갈등 심지어는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종교간의 갈등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경험하였고, WCC는 세계교회들의 협의체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답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선교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투기 보다는 온 세계의 고난받는 사람들과 창조세계를 살리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보다 돈독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삶속에서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만이 유일한 진정한 종교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CC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있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만이 진정한 선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WCC는 타종교인을 억압하고 국가나 다른 권력의 힘을 빌리거나 경제적으로 유혹하여 강제로 개종하는 선교정책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이라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WCC의 겸손한 대화의 자세가 다른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미지를 가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제3세계 국가와 특별히 이슬람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들을 억압하는 식민지 지배세력의 외세종교였고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WCC가 주도한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그들은 기독교의 열린 자세와 대화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WCC의 종교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평화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함을 통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프로

그럼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WCC가 그 어떤 공격적 전도 방식보다도 더 깊이 있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나누어 왔다고 굳게 믿습니다.

WCC는 협의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WCC가 어떤 사안에 대해 신학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는 여러 단계의 협의회적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신학협의회를 조직하여 여러 신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입장을 경청합니다. 물론 신학적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학문적 자유가 주어지고 이는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WCC가 당신은 무슨 말을 해서는 되고 안되고를 미리 각본을 짜서 지시하면 협의회적 과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입장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WCC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협의회적 과정중에 발표된 논문들을 WCC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WCC를 종교 다원주의로 비판하는 많은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발표된 내용들은 WCC의 입장이 아니라 각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교단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WCC는 협의회적 내용을 보고서로 요약하여 회원교단에 발송하고 회원교단의 입장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중앙위원회는 토론 후 WCC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수년에서 길게는 일이십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앙위원회나 총회에서 의결된 최종 성명서가 WCC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그리스도의 유일성 문제를 다룬 WCC의 유일한 공식적인 입장은 1982년에 발표된 <선교와 전도: 그 에큐메니칼적인 확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쳐치 리더>의 독자들이 그 문서를 한번 읽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의 답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WCC는 하나님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선교 신학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 넓은 견해가 일부에서는 WCC가 <선교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교회협의회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의 열매인 국제선교사협의회(Interan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정신과 사업을 계승한 기구입니다. 1961년 뉴델리 총회는 WCC는 세계선교가 교회의 일치추구나 봉사와 동등하게 교회의 본

질적인 사명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WCC내에서 IMC를 계승하는 금주섭 목사 당신께서 현재 총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가 우리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기금 시간을 투자해왔습니다. 지금부터 8개월 이후에 우리는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백주년을 기념하는데 이 기념대회에서 WCC는 우리가 교회의 세계선교적 사명에 신실하고 헌신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WCC가 사회 정의와 구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WCC는 복음전도와 구제, 사회 정의 모두를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는 선교에 있어 통전적 이해(holistic understanding of miss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로서는 선교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사명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으며, 선교를 협의하지 않는 교회협의회는 진정한 교회들의 만남과 사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7.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WCC와 견해를 달리하는 비회원교단, 특별히 일부 보수교단에 WCC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지난 8월말에서 9월초에 개최된 WCC가 차기 총회장소를 한국으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특별히 오순절 운동과의 만남과 대화를 갖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이며 세계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의 틀내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WCC 비회원 교단들,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들에 대해서는 WCC에 대해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WCC는 무엇인가? WCC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서로간에 만남과 대화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WCC는 비회원 교단중에서 복음주의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교회들에게 항상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WCC 회원은 아니지만 저는 WCC 총무로서 그리스도의 한분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들을 향해 화해와 친교의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의 다양함이나 신학적 견해의 차이, WCC의 회원이나 아니냐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친교하고 협력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부산 총회가 이 만남과 대화의 기회가 되고 한국의 비회원 교단들이 부산 총회에서 “21세기에 복음의 의미와 선교”에 대해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고 한국의 비회원교단들이 저희의 초청을 받아들

여 주시길 바랍니다.

8. 총무님, 다른 대륙에서 총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 지역의 비회원 교회들이 WCC의 총회를 반대하는 반발과 저항이 있었는지요? WCC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갔는지요?

초창기에는 특별히 1975년 제가 총년 총대로 참석했던 나이로비 총회를 기억합니다. 칼 메킨타이어가 주도하던 ICCC가 WCC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목소리를 모아 WCC 총회 직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WCC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WCC를 사탄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불행이도 이러한 시도는 케냐정부가 집회를 불허함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 정권의 이름을 내걸고 인종차별 정책을 정책화하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던 남아공 아파타이트 정권으로부터 사주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WCC는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아공 흑인교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남아공 백인 인종차별정부가 WCC가 아프리카민족전선(ANC)의 무기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흑색선전을 하였고 이들의 재정을 지원받았던 ICCC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계교회협의회가 교회의 헌금으로 무기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아주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며 WCC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이로비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케냐 정부는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고 남아공의 아파타이트 독대정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ICCC는 흑인들의 국가인 케냐에 받을 돈을 수 없다고 집회를 불허한 것입니다.

ICCC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CC 총회에도 비슷한 집회를 하였고, 1991년 캔버라 총회에는 아주 적은 소수가 모였는데 (아마도 남아공 아파타이트 정권의 붕괴와 만델라의 등장으로 더 이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여전이 목소리가 높았고 WCC를 반대하는 격렬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포르토알레그레 총회에서는 ICCC를 중심으로 WCC를 반대하는 그룹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마 칼 메킨타이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더 이상 ICCC의 역동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역대 WCC 총회에서는 WCC가 너무 사회정의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 정반대로 WCC가 충분히 예언자적이지 못하고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WCC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WCC 총회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일치와 선교에 대한 은혜롭고 복음적인 토론의 합의들은 잘 보도하지 않고, 대립적이고 갈등을 표출했던 일부 사안들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

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WCC를 비판하는 주된 내용들은 이러한 자극적 언론 매체들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아 보도한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부산 총회에서는 언론 매체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나쁜 이야기들만 아니라 총회의 좋은 면과 소식도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것을 언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들은 WCC뿐만 아니라 총회 개최국과 교회에도 별별 꼬투리를 잡아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나서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기독교언론들은 매우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언론이 부산 총회에서 세계 기독교언론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나쁜 소식, 편을 가르는 소식 보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나되는 소식이 많이 보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제 9 회 포르테 알레그레 총회이후 WCC가 세계를 위해 공헌한 선교적, 신학적 성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총회에서 총무보고를 드리면서 포르테 알레그레 총회와 부산 총회 사이의 WCC의 주요 활동과 사역으로 큰틀에서 세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들간의 관계와 협력의 강화입니다. 교회일치에 있어 관계적 차원은 에큐메니즘적 요소입니다. 지난 총회 이후로 WCC는 교회들간의 보다 밀접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관계의 증진을 이루어 냈다고 봅니다. WCC와 세계 각 기독교 교파들과 지역 협의체들과 봉사 및 선교단체들간의 관계 또한 매우 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편지(Living Letters)”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교회들과 연대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WCC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이베리아, 수단, 콩고 등등 박해받고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WCC 회원교단들은 우리와 다른 상황에 처한 교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으로서 깊은 사랑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적인 관심으로 특별히 중동문제에 대한 개입과 관심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포럼의 창립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가 포르테 알레그레 총회 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최근에 “핵없는 세상”에 대한 구상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수상이 논의했고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WCC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제기한 비핵화의 개념적 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0.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12월말로 WCC 총무직을 마무리하시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30여년이 넘는 제 에큐메니칼 목회와 사역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저는 에큐메니칼적인 “희망”을 늘 성찰해 왔고 이에 대해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 WCC의 총무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이 주제로 되돌아가 희망에 대한 에큐메니칼 간증을 모으는 작업을 할까 합니다. 전세계 다양한 교회들이 특별히 억압받는 교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놀라운 희망의 사역을 감당한 간증과 이야기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영성이 생명이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는지 그 증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전 대륙에 대한 이미지가 이루 말로 고통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방 어디에도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고통 한가운데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가운데 희망의 여정을 동행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전 삶을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희망 프로젝트에 제 남은 삶을 바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평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주된 활동이 분쟁 현장에서 화해를 위한 중재활동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분쟁과 갈등의 중재와 평화 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한 활동에 미력하나마 저의 경험을 보태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교회간의 남남협력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아프리카 교회의 연대, 아시아-아프리카-중동교회의 삼각연대를 통해 남반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교회의 중심으로 나서는 일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에큐메니칼 경험이 이를 위해 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재임 기간중에 전폭적인 지원과 우정 그리고 기도를 보내준 한국교회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오랜 에큐메니칼 운동의 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삼환 목사님께 특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의 지도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서 세계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연합과 일치'의 대의'
1. WCC 총회 유치 배경과 교회사적 의미

[2728호] 2009년 11월 05일 (목) 한국기독교공보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WCC와 총회 유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총회 유치의 의미,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각,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기고를 11월 한달간 게재한다.

송인설 / 서울장신대 교수

2009년 9월 1일 WCC 중앙 위원회는 한국의 부산에서 2013년 제10차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일부 한국 개신 교회는 WCC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한다고 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개신 교회 안에서 WCC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 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누가 WCC에 참여하고 있는가? 둘째,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을 추구하는 운동인가? 셋째, 2013년 WCC 총회의 한국 개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최근 언론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WCC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오해의 여지가 많은 표현이기도 하다. WCC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세계 기독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체 기독교의 2분의 1, 개신 교회의 복음주의 교회가 4분의 1,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이지만, 전체 기독교가 WCC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19세기 서구의 주류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선교지에 와보니 본국에서는 중요했던 교회의 교파가 여기서는 선교의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고 10년에 한 번씩 세계선교대회를 열어 협력을 모색했다. 현재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으로 인정받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WMC)는 이미 제8차 대회였다.

이처럼 에큐메니칼 운동은 서구의 주류 개신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주류 개신 교회라 함은 역사가 오래된 개신 교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의 루터교회, 개혁교회(장로교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등이다. 1차 암스텔담 총회(1948)와 2차 에반스톤 총회(1954)까지는 이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3차 뉴델리 총회(1961) 때, WCC에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참여했다. 먼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18개의 신생 교회들이 참여했다. 4개의 동방 정교회와 2개의 칠레 오순절 교회도 참여했다. 현재 WCC는 주류 개신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 마디로 교회 일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말하는 교회 일치의 개념은 무엇인가? 두 교회를 한 교회로 합치고, 여러 교회를 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인가?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37년 에딘버러 '신앙과 직제'는 협력적 행동, 성만찬 교류, 유기체적 연합이라는 세 가지 일치 개념을 제시하며, 교회를 구조적으로 연합시키는 유기체적 연합을 교회 일치의 최종 목적으로 보았다. 이런 노력으로 인도와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연합 교회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런 기구적 통합이라는 교회 일치 개념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WCC는 1975년 나이로비 총회부터 '협의회적 교제'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다. 협의회적 교제는 교회가 공동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에서 다른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991년 캔버라 총회는 코이노니아 개념으로 협의회적 교제를 보다 더 심화시켰다. 교회 일치는 교회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코이노니아는 특별히 사도적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세례와 성만찬과 교역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체 피조 세계를 섬기는 선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 2013년 WCC 10차 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WCC가 서구에서 남반구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제1차 암스테르담 총회에서는 유럽과 북미의 1백47개 개신 교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1백10개 국가의 3백49개의 WCC 회원 교회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남반구 교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WCC 총회는 남반구 지역에서 여러 번 열렸다. 아시아의 뉴델리에서 제3차 총회가 열렸고,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제5차 총회, 하라레에서 제8차 총회가 열렸고, 남미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제9차 총회가 열렸다. 이번 10차 부산 총회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다.

둘째, WCC가 복음주의 교회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 WCC에 가입한 교회는 4개 교단뿐이다.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만이 WCC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WCC가 총회를 한국에 유치한 것은 20세기 한국에서 크게 성장한 복음주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복음주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18세기 부흥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티모시 스미스에 의하면, 복음주의는 성경과 중생과 복음 전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성경은 복음주의의 권위이고, 중생은 복음주의의 상표(도장)이고, 복음 전도는 복음주의의 사명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 교회는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한 전형적인 복음주의 교회다. WCC는 이런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의식하고 총회 장소를 한국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WCC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총회를 여는 것이다. WCC는 특별히 교회의 사회 참여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세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밝히고 교회의 사회 참여의 방향을 정하는 데 공헌했다. 그 동안 WCC는 한반도의 분열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을 후원했다. 1990년에는 서울에서 JPIC 대회를 열었다. 최근에도 WCC 총무가 북한을 방문했다. WCC는 총회 개최지 한국을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실현을 위한 장으로 보는 것 같다.

사실 WCC는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예전의 역동성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여러 방면에서 WC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회원 교회들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WCC 기구 안의 인물들의 신학이 자유주의로 편향되었다는 비판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 WCC는 관료 체제 너머의 풀뿌리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WCC를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연합과 일치의 대의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W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난 1백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어떻게 방향 선회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계 교회들은 WCC의 영향으로 과거의 교회 분열의 상처를 상당 부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탈 정교회는 1989년 기독교적 일치에 서명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 교회는 1965년 상호 과문을 철회하고 1978년 이후 신학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1999년 칭의 교리에 대한 공동 선언을 통해 과거의 정죄 문제를 풀고 신학

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유럽의 종교개혁 교회들은 1973년 로이엔베르크 협약에 근거하여 강단 교류와 성만찬 개방과 직제의 상호 승인에 서명했다. 이번 한국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도 이런 세계 교회들의 교회 일치 노력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

2.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각

[2729호] 2009년 11월 12일 (목) 한국기독교공보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WCC와 총회 유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총회 유치의 의미,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각,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기고를 11월 한달간 게재한다.

장운재 / 이화여대 교수

현재 한국교회가 부정적으로 WCC를 보는 입장은 지난 11월 6일자 한 일간지에 실린 모 교단 총회장의 담화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에는 "WCC와 함께 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는" 이유 1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WCC 회원에 공산권 교회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다는 점, WCC가 제3세계의 혁명이나 폭력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 가톨릭을 포함한 타종교에 관용적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점, 성경무오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등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복음의 토착화에 관용적이고 동성애자 교회 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공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WCC의 회원 교회 가운데 동방 정교회가 가장 큰 회원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더 이상 공산권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현재 WCC

의 회원 가운데는 장로교(28%), 루터교(16%), 감리교(11%)를 포함해 개신교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 이 땅에 장로교회가 있게 한 미장로교회(PCUSA)도 현재 WCC의 정식 회원 교회이다. 우리는 설사 UN에 공산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소극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WCC에는 공산권 교회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회가 아직도 과거 동서냉전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미래와 선교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WCC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 핵심은 '대화(dialogue)'이다. WCC는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와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 그동안의 다툼과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려는 '대화의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눅 19:42)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세상보다 더욱 깊이 분열된 교회를 보시고 또한 '평화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가 아니라 세상의 주가 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엡 4:6) 계신다. 따라서 WCC의 대화는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타종교로, 인류 공동체 전체로,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WCC는 분명 빈곤과 인권과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의 신학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개인의 사후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고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 '세상(cosmos)', 즉 온 우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 사랑이고 그의 사랑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만의 머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불의와 폭력과 생명파괴로 얼룩질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WCC가 해 온 교회의 '공적 증언(public witness)'은 이와 같은 신앙의 표현이었다. 같은 교회가 이것을 세상 권세자의 눈으로 불온시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수세기 동안 각 종교 전통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다. 여러 종교가 한 지역에 공존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는 각 종교 공동체들이 상호 고립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종교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물론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우려와 종교간 대화가 선교의 절박함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WCC가 종교간 대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적 대답만 요구하는 기독교적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테러리즘,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대규모 파괴 등,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운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모든 종교 공동체가, 나아가 전 인류 공동체가 '초당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태도이다. 오늘날 많은 타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를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선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위협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마저 교회의 선교를 '위협'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한다. 위협이 아니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 조직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교회일치 혹은 교회연합 운동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논한다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는 과제이다. 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적 풍토에서 대화와 관용의 문화가 자리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로 잘 대화하다가도 '너 몇 살이냐'는 질문 하나면 모든 대화가 끝나는 게 한국적 풍토이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상호 소통 능력이 빈약한 '가부장 문화'와 '군사주의 문화'에 기독교의 배타적인 '근본주의 신학'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꽃피우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보다 에큐메니칼 정신과 문화와 또 운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에반젤리칼(evangelical)'과 상반된다는 잘못된 도식부터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칼의 반대는 에반젤리칼이 아니라 '섹테리안(sectarian)', 즉 '분파주의' 혹은 '당파주의'이기 때문이다.

분파주의 혹은 당파주의란 자신의 특정한 신앙체험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마치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최고의 것인 양 주장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적인 시각을 결여한 교회는 복음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분파주의는 특정 교파의 교리를 절대화하고 복음을 '사유화(privatization)' 한다. 이에 반해 에큐메니칼 정신은 교파적 신앙고백의 부분성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계적인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고전 12:25) 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자기 초월, 자기 비움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운동이 아니다. 분열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없다(요 17:21).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관건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경쟁적이고 개교회적인 양적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질적인 성숙과 내실화를 도모할 때다. 바로 이 질적인 성숙과 내실화의 관건이 에큐메니칼 정신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를 살리고 재도약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다고 믿는다. 2013년 WCC 총회의 한국 유치는 바로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이다. 이제 분파주의로부터 에큐메니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국교회의 새 화두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복된 초대 앞에 과거의 오해와 상처와 아집과 편견을 다 털어버리고 인간의 지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직 한국교회가 가보지 못한 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다.

다양성 위에 세운 '하나의 십자가'

3. WCC에 대한 이해

[2730호] 2009년 11월 19일 (목) 한국기독교공보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WCC와 총회 유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총회 유치의 의미, WCC에 대한 한국교회의 시각, 총회를 준비하

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기고를 11월 한달 간 게재한다.

노영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는 개신교와 정교회를 대표하는 1백10여 개 국의 3백49개 교단이 회원으로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교회연합체이다.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에서 본격 태동하였으며, 그 결과 1920년대에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1), 생활과 실천회의(Life and Work, 1925), 신앙과 직제회의(Faith and Order, 1927) 등 WCC의 전신이 되는 주요 기구들이 결성되었다.

이에 있어 후자의 두 회의가 합쳐져,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차 WCC 총회가 열리게 된다. 당시엔 1백50여 개 교단교회들이 참석하였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렸던 3차 WCC 총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가 WCC로 병합되었다. 1968년엔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World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가 병합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WCC는 네 개의 주요한 국제기구들이 연합되어 구성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WCC의 기본 조직

총회와 중앙위원회, 그리고 총무 산하의 본부 조직이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전엔 본부 조직이 세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었다. 신앙과 증언, 정의와 봉사, 교육과 갱신의 세 사업부(Program Unit)이다. 각 사업부에는 위원회(Commission)와 소분과(Subunit)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그러한 WCC의 구조가 대폭 변경되었다.

총회는 6, 7, 8년 만에 개최되었으나, 최근에는 7년 만에 모이고 있다. 2013년 제10차 총회는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기적인 중앙위원회는 보통 1년 여 만에 개최되어왔다. 중앙위원회는 대개 제네바에서 많이 열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열린 적도 적지 않다. 본부 조직은 크게 세 기구로 나뉜다. 자문기구(Consultative Bodies), 연결 기구(Joint Bodies), 프로그램과 관리(Programmes and Management)의 세 기구이다.

자문 기구엔 신앙과 직제위원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제문제에 대한 교회들의 위원회, 교육과 에큐메니칼 형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다. 이에 있어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이전의 신앙과 직제회의의 후신이며,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는 국제선교협의회의 후신이고, 국제문제에 대한 교회들의 위원회는 이전의 생활과 사업회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 에큐메니칼 형성위원회는 이전의 세계기

독교교육협의회(World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와 연관된다. 이와 같이 현 WCC 조직 속엔 이전 네 개의 조직들이 병합되어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WCC 총무는 특히 '프로그램과 관리'(Programmes and Management)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7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의 일엔 재정과 인력 그리고 시설의 관리들이 포함된다.

WCC의 세 가지 중점사역

WCC는 크게 세 가지의 일에 관심을 둔다. 교회일치운동, 세계선교, 그리고 사회 참여로서의 JPIC 운동이다. 교회를 하나로 하여 세계선교의 효율을 높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가 WCC이다.

첫째,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이 그 하나로서 우리는 그 운동의 모토를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교파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WCC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만들어진 BEM 문서를 들 수 있다.

둘째,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CWME)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선교의 사역이 중요하다. WCC는 선교를 위해 1952년 빌링겐에서 열린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주창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바 있다.

세 번째, WCC는 교회와 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참여운동을 펼쳐 왔는 바,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JPSS(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또는 JPIC(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라는 개념을 배태케 하였다.

정의는 가난과 분배의 문제, 평화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 창조의 보전의 환경문제를 각각 다룬다. 환경문제의 최근 주요 이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다.

제10차 부산 총회의 주제는 내년 초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여러 아젠다들을 생각해 보면서, 2013년 총회(Assembly)의 주제를 '영성을 통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Christian Spirituality)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본다.

WCC 신학은 두 기둥사이에서 고심해 왔다. 그 하나의 기둥은 교회의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의 사회참여로서, WCC는 매 회의에서 이러한 보수와 진보의 양면성을 강조하여 왔다. 곧 복음과 영성을 말하면서도 사회참여에 무심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WCC는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 흐름을 이제 통

전적인 견지에서 깊이 있게 정리할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WCC 총회유치에 즈음하여 WCC가 종교다원주의 및 사회복음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었다.

기실 WCC는 여러 교단들의 모임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내재해 있다.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으며 진보적인 발언도 있다. WCC의 신학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회원교단의 신학적 작업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나름의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온 교회로, 그러한 보수적 입장이 WCC에 크게 공헌하리라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세계 공헌의 장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세계교회의 신학을 이끌고 가는 교회로 성숙되길 기대해본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속에서 막내 동생과 같은 태도를 취해선 안 될 것이다. WCC 전통 중에 있는 긍정적 신학들을 정제하여, 복음주의적인 견지에서 이 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길 소망한다.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자'

4. WCC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2731호] 2009년 11월 26일 (목) 한국기독교공보

조성기 / 목사 · 총회 사무총장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원이 되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는 분열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다. 예일대학의 교회사 교수 케네스 라투렛이 선교의 “위대한 세기”로 표현했던 19세기 선교운동의 정점에서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놓고 에딘버러 대회는 교단의 분열과 난립으로 인한 경쟁과 다툼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믿게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리스도의 일치에 기도로 돌아가 다른 교파와 교단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교회의 연합과 일치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에딘버러대회에 윤치호 선생을 파견하는 것을 필두로 계속되는 세계교회의 일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도 1918년 조선예수교장감협의회를 조직한 이후 오늘날까지 중단없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노력을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특별히 장로교안에서 WCC 가입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단이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는 아픔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지금 변명하기로는 WCC의 용공성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WCC에 동구권 교회들이 가입(1961년 뉴델리 총회)하기 이전이었고, WCC는 한국전쟁을 남침으로 규정하고 연합군의 파견을 유엔에 가장 먼저 권고했으며, 한국의 전쟁복구와 구호를 위해 막대한 물량을 지원하는 등 강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신학 논쟁도 WCC가 자유주의가 아닌 상당히 보수적인 신정통주의적인 바르트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바르트 신학을 자유주의로 보는 신학적 오해가 있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 내부의 분열의 원인을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이라고 적당히 포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남는다. 어쨌든 한번 분열된 교회는 핵분열을 거듭하여 장로교단만 1백여 개가 넘게 난립하고 있으며 혹자는 이미 2백여 개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1백여년 전 에딘버러대회의 상황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분열의 난맥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숨겨진 몸의 회복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으로 비유하였다.

교회의 분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 없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분열은 어떠한 신학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교회의 지난 1백년간의 일치의 노력과 여정의 성과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부산 총회는 세계 각처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앙고백과 선교 그리고 일치 추구의 경험을 배우고 나누는 장(場)이 될 것이다.

인도의 우화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코끼리의 형상을 깨닫는 길은 오직 그들이 체험한 코끼리의 형상을 하나로 모음으로 가능하다. 어찌 나만이 무소불위(無所不爲)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해(河海)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유치한 회원교단으로서 우리는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애정 어린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총회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제교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근거 없는 비난은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과 협력 정신을 훼손하고 자칫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가 자제하고 나보나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교단은 이번 WCC 총회 유치에 나서면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가 WCC 총회 유치에 앞장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스스로를 자랑함도 아니요 세계와 국내 연합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섬김의 자세로 세계교회의 총회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부산 총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국내 형제교단들과의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겸손한 중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제네바의 사무국이 전부다 아니다. 전세계 1백10여 개국의 5억6천만의 성도들을 포괄하는 3백49개 주류 교단의 협의체이다. 사도적 신앙을 승계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세계의 거의 모든 개신교회와 정교회 주류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장로교회, 미국감리교회, 캐나다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 호주연합교회,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웨일즈장로교회, 영국성공회, 독일루터교회 등 우리의 어머니 교회들도 모두 WCC의 핵심 회원교단들이다. 나만 옳고 그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율법주의적인 정죄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갖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선교와 전도의 기회

에딘버러 대회 이래 지난 1백년간 WCC가 축적한 에큐메니칼 영성과 예전, 신학과 선교, 대화적 증언과 인류의 공동과제에 대한 응답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다. 기독교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시대정신을 이끌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부산 총회를 통하여 한국사회는 그들이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선입견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교회의 하나됨의 성숙함과 예전의 경건함과 장엄함 그리고 헌신적 선교와 시대적 증언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의 역사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인류를 향해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이미지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선교와 전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주체적 노력이 있어야만 부산 총회는 단순한 손님맛이가 아닌 우리의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부산 총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나누는 분열의 장이 아니라 그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갈라지고 찢겨진 모습을 한국 사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면 그들은 영영 우리로부터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비약적 성장을 자화자찬하지만 20%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교회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복음의 역사와 더 큰 규모의 교단들과 훨씬 더 높은 복

음화율을 이룬 나라도 많다. 우리는 부산 총회를 통해 그들과 만나고 배우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한국기독교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떠올린다. 갈등과 분열의 현장 한가운데서 화해와 일치를 기도하는 거룩하고 잔잔한 영혼의 울림을 듣는다.

"주여 분열된 한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을 이루는 일치의 도구로, 갈라진 한반도를 세계의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사오나 당신께서 이 땅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미천한 우리를 들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치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갈등에서 화해의 시대로, 분열에서 일치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